

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4. 16.(목) 12:00
(지면) 2026. 4. 17.(금) 조간

‘간부 모시는 날’ 근절, 공직사회 내 실질적 변화 확인

- 행정안전부·인사혁신처 합동 실태조사 결과, 1차 조사 대비 16.4%p 감소
- ‘비정상의 정상화’ 통해 공직사회 자율적 변화 확산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와 인사혁신처(처장 최동석)는 지난 3월 합동으로 실시한 ‘간부 모시는 날’ 3차 실태조사 결과,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1.7%로 급감하며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* 공무원들이 ‘순번’을 정해 ‘사비’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함

<공직사회 사비로 상사 식사 대접하는 관행 사실상 사라져>

□ 이번 조사는 중앙·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‘e사람’(중앙) 및 ‘인사랑’(지방) 시스템을 통한 설문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, 총 18만 1,688명(중앙 10만 6,089명, 지방 7만 5,599명)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응답자 수를 기록하였다.

※ 1차 조사(‘24.11월) 15만 4,317명, 2차 조사(‘25.4월) 11만 3,404명 참여

○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차 조사 2024년 11월 18.1%에서 2차 조사 2025년 4월 11.1%로 낮아진 데 이어, 이번 조사에서는 1.7%까지 떨어지며 1차 조사 대비 16.4%p가 감소했다.

※ (전체) (‘24.11월) 18.1%→(‘25.4월) 11.1%→(‘26.3월) 1.7%로, 1차 대비 16.4%p, 2차 대비 9.4%p 감소

※ (중앙) (‘24.11월) 10.1%→(‘25.4월) 7.7%→(‘26.3월) 0.4%로, 1차 대비 9.7%p, 2차 대비 7.3%p 감소

※ (지방) (‘24.11월) 23.9%→(‘25.4월) 12.2%→(‘26.3월) 3.4%로, 1차 대비 20.5%p, 2차 대비 8.8%p 감소

<현장 간담회와 우수사례 확산 통한 조직문화 혁신 추진>

-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어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고,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.
- 전 기관이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인 결과,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, 조직 전반에 걸쳐 관행 개선의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.
- 아울러, ‘간부 모시는 날’ 근절 사례를 전근대적 관행을 혁파한 대표 사례로 확산시켜,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직사회로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.
-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“특히, 중앙정부의 경우 각 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‘간부 모시는 날’이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판단된다”며,
 - “인사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모든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, 공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”며,
 - “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, 공직 구성원의 행복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	책임자	과 장	강민지 (044-205-2241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현 (044-205-2243)
	인사혁신처 복무과	책임자	과 장	김재선 (044-201-8440)
		담당자	서기관	정상준 (044-201-8444)

